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0. 12.(화) 22:00	배포일시	2021. 10. 12.(화) 16:00
담당과장	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최지영 (044-215-8750)	담당자	김연태 lpyuntae@korea.kr

홍남기 부총리,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 참석
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'21.10.12.(화) 19시 30분(한국시간), 화상으로 개최된 「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* 제6차 장관급 회의」에 참석하였다.

* 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: 기후행동 추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2019년 4월 설립, 총 64개 국가 가입 (개요: 참고)

-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재원, 탄소가격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재무장관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난 4월 연합에 가입을 결정한 바 있다.
-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이후 2021년도에 개최된 두 번째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의 장관급 회의로서,
 - 64개 연합 회원국과 세계은행(WB)·국제통화기금(IMF)·경제협력기구(OECD)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하여 기후행동을 위한 재무장관들의 역할을 논의하고,

- 회원국은 2020년 10월 제4차 장관급 회의 이후 연합의 활동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재무장관들의 기후행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승인했다.

□ 홍 부총리는 화상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재무장관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였다.

❶ 첫째,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며, 그린 뉴딜 등 한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다.

❷ 둘째, 민간의 자생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,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·공개 의무화, 녹색분류체계 마련 등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.

❸ 셋째,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조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

-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며,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 마련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 고

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개요

* 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: IMF/WB 연차총회 계기로 '19.4월 춘계회의에서 국가 간 연합으로 발족

□ (목적) 경제·재정정책 등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적, 세계적 행동 촉진

□ (구성) 총 64개 회원국* + 사무국(WB와 IMF가 사무국 역할 공동수행)

* '21.4.6일 장관회의 계기 우리나라, 미국, 일본 가입 + 유럽 중심 회원국의 회의체

** WBG, OECD ADB, AfDB, IDB, UNDP, UNEP 등 25개 기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
'21.9월 GCF-GGGI 및 KDI, KIEP, KIF, KIPF의 협력기관 가입 승인

□ (주요 역할) 재무장관의 헬싱키 원칙 이행을 위한 정책 지원

<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의 헬싱키 원칙 >

- ①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
- ② 기후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경험 공유
- ③ 효과적 탄소가격제 달성을 위해 노력
- ④ 거시경제정책, 재정계획, 예산, 공공투자관리, 공공조달 등에 기후변화 위험 반영
- ⑤ 금융부문의 발전과 투자 촉진을 통한 민간부문의 기후자원 조달
- ⑥ 국가결정기여(NDC)의 준비 및 이행에 적극적 참여

○ (회원국 역할) ①연합 목적·조직 검토, ②연간 업무계획 승인, ③성과 평가, ④연합 발간 보고서 검토 및 승인 등

* 기술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은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, 회원국의 자발적인 공여로 연합이 운영 → 현재 독일, 스위스가 자발적으로 사무국 운영비용을 부담

○ (주요 행사) 매년 1회 이상 장관급 회의(IMF/WB 연차총회 계기), 월례 세르파회의, 지속적 워크숍 및 세미나 등

* 재무장관이 동 연합 담당 세르파대리 세르파 지정, 통상 국장급에서 세르파직 수임

□ (주요 동향) 회원국 및 협력기관 확대 등 연합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, 중점분야별 연구 소그룹* 운영을 통해 연내 성과 창출 추진

* 장기저탄소전략, 탄소가격 부과체계, 탄소인지예산, 녹색금융, NDC 개선방안 등